

## <재외동포청-반크, 대한민국 바로 알리는 공공외교 앞장선다>

### 동포 차세대 자긍심 고취·한민족 정체성 강화위해 업무협약

재외동포와 함께 한국 발전상 소개·국내 인식개선 등 추진

- 재외동포청(청장 이기철)은 한국의 발전상과 역사, 문화 등을 재외동포를 비롯한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(단장 박기태, 이하 반크)와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.
  - \* 반크(VANK :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)는 세계 속 한국 바로 알리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 네트워크 단체
- 이번 업무 협약은 해외에서 나고 자라 거주국에 동화되고 있는 차세대 동포들에게 뿌리인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국가라는 사실을 알려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상생발전(동반성장)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함께 인식하면서 추진하게 됐다.
- 무엇보다도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거주국에서의 지위를 향상하고 주류사회에 진출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의 발전상 등을 재외동포 거주국에도 널리 알리고, 재외동포들에 대한 국내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하기로 하였다.

- 또한, 각국에 거주하는 차세대 재외동포의 적극적인 동참을 끌어 내는데도 함께하기로 했다.
- 양 기관은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.
- (콘텐츠 개발) 한국을 쉽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정치·경제 발전상과 역사·문화에 대한 콘텐츠 개발 및 캠페인 사이트 구축
  - (청소년 대상 정체성 교육) 재외동포 청소년 및 대학생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국의 정치·경제 발전상 등을 주제로 한 온·오프라인 교육 실시
  - (한글학교 교사 대상 정체성 교육) 차세대 정체성 함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외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한국 정치·경제 발전상 등 교육
  - (외국 교과서에 한국 발전상 수록 지원)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 주류사회로 진출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포 사회와 협력하여 한국의 정치·경제 발전상을 거주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등 동포사회의 공공외교 지원
  - (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 활동)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이해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 사회의 역사,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기여, 동포 거주국과 모국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 및 앞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국내에 널리 전파

-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“<한국의 정치·경제 발전상>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차세대들의 주류사회 진출에 지원이라는 정부 재외동포정책의 2개 핵심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소재” 라고 하면서,
  - “한국 발전상에 대한 외국 교과서 수록은 현지인에게는 한국을 바로 알리고 동포 차세대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네덜란드와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성과를 거둬 증명된 일” 이라며 “오랜 기간 민간 외교사절단으로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려온 반크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및 재외동포사회의 역량을 결집한다면 더 많은 국가로 확대할 수 있는 업” 이라고 강조했다.
  
- 반크의 박기태 단장은 새로 출범한 재외동포청과 중요한 공공외교 사업의 파트너가 되어 기쁘다면서 “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동포청과 함께 한다면 전세계 차세대 동포들이 동참하는 데에 있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 고 말했다.
  
-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민간, 지자체, 재외동포사회와 협력하여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한인 정체성 함양,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
붙임 : 재외동포청과 반크 간의 업무협약서 서명식 사진(별도첨부). 끝.

담당	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	책임자	과장 최윤선 (032)585-3154
		담당자	서기관 오현영 (032)585-3155